

Submission No.: EE01-9129

Session Title: Ethics Education

Date &amp; Time, Place: April 29 (Sat), 15:30 - 17:30, Auditorium

## 노인 말기신부전 환자의 예후 평가 및 보존적 돌봄의 실제

Seo Ri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Korea, Republic of

말기신부전에 이르러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투석 치료는 하나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로 여겨져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령 투석 환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매우 높아 75 세 이상의 환자에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는 10% 이상의 환자에서 3 개월 미만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5 세 이상에서는 추정사구체여과율 15-29 ml/min/1.73 m<sup>2</sup>로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도 사망위험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보다 높고, 노인환자에서 잔여신기능이 남아있는 경우 젊은 연령에 비해 연간 신기능 감소의 폭은 적다. 노인환자에서 투석을 하게 되면, 잔여신기능이 투석을 받지 않던 때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투석치료를 통해 일정 정도의 삶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삶의 질 향상이나 뚜렷한 여러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투석 치료로 명확한 이득을 얻기 어렵고 투석에 따른 부담이 큰 경우, 또는 환자의 삶의 목표가 단순 생명 연장 보다는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보존적 신장 관리는 투석과 동등한 선상에서 환자에게 안내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존적 신장 돌봄 또는 관리 (conservative (nondialytic) kidney management, CKM) 는 말기신부전 (추정사구체여과율 <15 ml/min/1.73m<sup>2</sup>) 환자에서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지내는 환자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면서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적 신장 관리는 투석치료 없이 요독 증상에 대한 단순 관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구성요소로는 신질환 관련 의학적 치료, 삶의 질을 고려한 증상 관리, 연명의료계획과 같은 사전돌봄계획, 완화돌봄 (palliative care), 생의 말 돌봄 (end-of-life care)이 있어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적 신장 관리를 논의할 때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환자의 삶의 목적, 가치관, 선호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적 상태와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과 적절한 의사결정도구 (decision aids)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에서 환자의 선호와 가치를 바탕으로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보존적 신장 돌봄을 선택한 케이스와 함께 신질환에 따른 증상 평가와 관리, 치료 계획의 수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 -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연구회

만성콩팥병의 지지적 돌봄

